



“간절히, 삐곶에 사무치게 화두 들라”

사부대중 500여명 참석 진제 스님 결제법문 경청

무자년 하안거
동화사 금당선원
결제현장

전국 100여개 선원에서 ‘부처를 뽑는 시험장(選佛場)’이 일제히 열렸다. 5월 19일(음력 4월 보름), 2200여 수좌들이 전국의 간화선 수행처에서 무자년 하안거 결제에 돌입한 것이다.

하루 전인 18일, 선원에 방부를 들이고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을 작성한 수행자들은 이날 결제일 오전에 방장, 조실 등 선지식의 결제법문을 듣기 위해 삼삼오오 법당으로 모여들었다. 전문 수행자인 수좌는 물론, 남녀노소 재가 선객들도 이날만큼은 함께 큰스님의 입제법문을 듣고 석달간의 집중수행의 각오를 다지는 날이기도 하다. 마치 방거사가 “시방에서 함께들 모여들어 모두가 제각기 무위(無爲)를 배어나니, 이곳은 부처 뽑는 과거장이라 마음 비워 금제해 돌아가리라.”고 노래한 것처럼, 출제가 수행자들은 결연한 의지로 ‘부처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 비우고 또 비우는 ‘심공(心空) 불사’에 몰입할 태세다.

하안거 결제일, 팔공산 동화사주지 허운(許雲)에서도 산문 안팎에서 하안거에 들어가는 수행자들이 조실 진제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의 결제법문을 듣기 위해 통일기원대법전으로 모여들었다. 부도암, 양진암, 내원암, 염불암 등 동화사 산내 결제대중과 청도 운문사, 경주 흥륜사 등에서 온 대구·경북지역 사부대중은 무려 500여명. 이 지역 선객들이 총출동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제 분별과 시비·장단, 품종이 애착도 다 놓아 버리고, 오매불망 간절히 삐곶에 사무치는 각자의 화두를 들어 일념이 지속되도록 혼신의 정력을 다 쏟아야 합니다.”

진제 스님은 하안거 입제식에서 법문을 통해 “대신심과 대웅평심을 내어 이철에 반드시 화두가 순일해져서 대오견성(大悟見性)하리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거수 일투족 성성하게 화두를 챙기는 가운데 의심을 쭈욱 밀어주고 또 밀어주고 해서 번뇌와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공부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진제 스님은 모든 수행대중의 결제(結果) 및 포살(布薩) 참여를 적극 당부하기도 했다. 스님은 “결계와 포살은 부처님 재세시(在世時)부터 이어온 승가의 오랜 전통으로 선원, 강원, 총림 등의 대중승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잘 전승되고 있으나, 이외의 수행처소에서는 제대로 시



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하안거부터는 종단에서 승가의 수행중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수행대중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진제 스님은 이어 운문 선사와 취암 선사, 조주 선사의 수행일화에서 비롯한 세가지 공안을 제시하며 화두타파에 진력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법문을 시작할 때엔 스님은 이윽고 주장을 내려찍으며, 법의 문을 닫았다. 50여 분의 긴 법문을 설했지만 한 마디도 설한 바 없는 도리를

알아차렸는지, 법회를 마친 대중들은 각자의 수행처로 묵묵히 발걸음을 옮긴다.

동화사 금당선원에 방부를 들인 30명의 남자들은 “부처 있는 곳에도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에도 급히 떠나라”는 조실스님이 제시한 공안을 참구하며, 봉황이 알을 품는 모습의 터에 자리한 선방에 태산처럼 앉는다. 수좌들은 이날부터 1967년 경허-혜월-운봉 선사의 맥을 이은 항국 선사로부터 전법계(傳法契)를 받은 진제 스님의 지도점검을 받으며,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면목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와 사생결단을 벌일 것이다. 석달이 지난 후, 아니 그 전에 은산 철벽(銀山鐵壁)을 깨부수고 ‘문없는 문(無門)’의 빛장을 열어 사자후를 외칠 대장부들의 얼굴이 자못 공명하다.

직접 선방에 앉지는 않지만 수행자를 뒷바라지 하는 외호대중들의 마음 역시 남자들의 심정과 다름이 없다.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결제는 대자유와 해탈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아름다운 자기구속”이라며 “결제대중이 여법하게 정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 하겠다”고 말했다.

동화사 일주문 역할을 하는 봉황문을 나서며, 석달 후 알을 깨고 비상할 팔공산의 봉황들을 상상해 본다.

대구=김경수 기자/ 사진 박재관 기자

“불교의 수행은 참선이 핵심입니다. 각자가 ‘참나’를 찾아 영원한 대자유를 얻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불기 2552년 하안거 결제가 시작된 5월 19일,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진제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을 뵈고 안거수행의 의미와 마음공부에 대해 들어보았다.

“참나 찾아 대자유 얻으세요”

인터뷰 /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진제스님

▲선(禪)은 동양은 물론 서양에서도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도 의의 없고 형식 쓰고 있는 마음고향의 땅입니다.”

▲불교에서는 ‘나를 비워라,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광대무변한 깨달음의 세계에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참나’는 증생의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수행을 통해 도안, 법안, 부처의 눈, 진리의 눈을 갖춰야 볼 수 있습니다.”

▲광대무변한 깨달음의 세계에서 ‘나(我)’가 존재합니까?

“나(我)가 없지만, 표현하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의 ‘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33세에 항국 선사로부터 깨달음을 인정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깨달은 이후에 세상을 보니 어떠했습니까?

“처처(處處)가 불국토요, 처처가 화장세계(華藏世界)요, 처처가 반야(般若)입니다.”

▲화두를 타파하려면 반드시 숙면일여(熟眠一如)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요.

“숙면일여란 일념삼매(一念三昧)를 말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의심으로 화두를 챙기고 또 챙겨서 일념이 되도록 노력하다 보면, 문득 보는 것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 아있어도 앉아있는 줄 모르고, 밥과 낮을 잊고서 시간이 흘러가는 줄도 모르고 흐르게 되는데, 이렇게 몇 날 몇 달이 흐르고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참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게 됩니다.”

▲동화사 금당선원의 수행 기풍과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금당선원은 이 나라 역대 선사들께서 선(禪)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신 곳이고, 특히 근세의 대선사인 경허 선사님과 석우 선사, 효봉 선사, 항국 선사, 고봉 선사, 전강 선사 등이 주석하여 후학을 지도하신 곳입니다. 이번 하안거에는 금당선원과 부도암, 양진암 등에서 모두 102명이 방부를 들였



으며, 총 181명의 대중이 함께 공부를 합니다. 산승이 매일 음력 보름은 물론, 결제와 반결제 및 해제까지 직접 상당하여 법문을 내리고, 공부에 의문이 있거나 견처가 생긴 이들에게는 항상 열화살 문을 열어놓고 제정하고 있으니, 부처님과 옛 선사님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정안(正法眼藏)과 참선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본래대로 전해져 온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와 중국에서는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은 어떤 지혜로 이 난관을 풀어야 할까요?

“지금 미얀마와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풍채(風災)와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웃된 도리,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성심껏 성급과 지원으로 온정의 손길을 보내 조금이라도 그 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아픔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생활인들을 위한 마음공부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하게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모두 마음쓰기(用心)에 달렸습니다. 참선을 꾸준히 하면 차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며 마음의 갈증이 봄에 눈녹듯이 녹아내리고 날로 지혜가 증장되어, 나와 더불어 모든 이들이 평화롭고 화합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투투컴퓨터

전문가용 종합 역학프로그램 /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홈페이지 제작, 관리 / 종합사찰 서비스

전화: 서울 02)585-1141 / 부산 051)505-2434

www.twotwocom.co.kr

네이버에서 투투컴퓨터를 치세요! 사주대진, 금강장사,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강장사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금강장사
한눈에 보이는 신도관리! 철저한 사후관리!

측원관리/회원관리/영가관리/생일관리/명함관리/모듬처리/일정관리/회계관리/신수보기/전체신도인쇄/자료경리와 백업기능... 투투컴퓨터의 금강장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용 종합 역학 소프트웨어 투투컴퓨터

四柱大典 사주대진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낱말이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사주대진의 모습을 투투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리, 주역, 귀곡, 자미, 기운, 궁합, 성명, 택일, 당사주, 토정비결, 오운육기



홈페이지 제작

- 1. 제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문담당직원이 직접방문 상담
- 2. 제작 후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컨설팅지원
- 3. 검색사이트 일반등록 무료대행

당신의 쉬고 있는 손! 10억짜리란 사실을 아십니까?

성장 카이로프락터 양성 | 성장 카이로프락틱 개강 |

포교! 스님의 능력이 경쟁력입니다

교과목

- 골격학, 근육학, 척추 및 골반 선추 교정, 성장 크리닉
- 31세의 중추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근본적 질환 퇴치, 척추질환, 알레르기, 빈혈, 천식, 기관지, 변비, 어지러움증, 정서불안, 허약체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갑상선 부작용 등등

대상

- 스님, 의료기관 근무자, 스포츠 맛사지사, 피부 미용사, 물리치료사, 체육관련 종사자, 봉사 활동자

자격

- 초보자 및 실직·정년 퇴직자

기간

- 2급과정 (2개월) * 1급과정 (1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108 시간 집약 완성

장소

-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입학일시

- 2008년 6월 7일 (선착순 20명)

- 키크기는 영양(31%), 운동(20%), 환경(16%)등 후천적 요인이 실제 77%를 점하고 있다. 매일의 생활습관으로 거의 80%의 성장 발육 촉진을 시킬 수 있다.

- 키는 골단연골(성장선)이 성장호르몬과 기타 호르몬의 작용으로 골막에서의 영향으로 충분한 혈액을 받아서 성장이 된다. 성장호르몬의 축진은 20세 이전이 가장 효과적이며 성장호르몬축진 제4스텝 명상법과, 척추 스트레칭, 발육촉진의 식단으로 최대의 성장선 발육을 기대할 수 있다.

- 본원은 귀하를 유능한 운동처방사로 탈바꿈 전국학생 80%의 축만증으로 인한 성장발육장애와 작은키로 고민하는 아이들을 위한 최상의 키크프로그램으로 여법한 포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본원 해동체육지도사 2기 부터는 최상의 성장 크리닉을 함께 강의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법인 해동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서울·구로구 구로1동 685-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원장 우해안 스님